

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젠더 및 계층 차이

진미정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), 성미애 (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), 기쁘다 (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)

연구목적 및 배경

-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인식의 젠더 차이와 소득계층의 차이를 교차하여 경향성을 확인하는 것임
- 혼인율의 저하를 설명하는 두 축은 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임
- 문화적 접근은 가치관 변화가, 경제적 접근은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혼인율의 감소를 추동한다고 설명함
-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젠더에 따라 달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큼(진미정, 성미애, 2021)
- 이러한 젠더 차이가 경제적 요인, 즉 계층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또는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가 많지 않음

연구방법

분석자료 및 연구대상

- 2022년 6월 말 ~ 7월 초까지 1997년생 이후의 성인 남녀 1,319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가족 관련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
- 이 중 19~49세 미혼자 670명 자료(남성 321명, 여성 349명) 사용

측정도구

-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: “귀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하는 응답으로 측정
- 소득계층: 스스로 응답한 주관적 소득계층에 대해 하, 중, 상 집단으로 구분
- 통제변인: 연령, 교육수준, 직업 지위, 성취감

분석방법

- ANOVA
- 로지스틱 회귀분석

연구결과

표 1.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

주관적 소득 계층	남(%)	여(%)
하	64.62	60.14
중	80.31	62.90
상	80.00	58.33
평균	73.29*	61.06

-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응답은 남성(73.29%)이 여성(61.06%)보다 높았음
- 흥미로운 점은 남성 집단에서만 계층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임
- 남성은 소득 하층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낮았고(64.62%), 여성은 소득 상층에서 긍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낮았음(58.33%)

표 2.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

	Model 1		Model 2	
	b	s.e.	b	s.e.
성별 (1=여성)	-.58**	.18	.32	.48
소득계층	.11	.14	.43*	.22
성별*소득계층			-.56*	.28
연령	-.02	.01	-.02	.01
교육수준	.18	.17	.17	.17
직업 지위	.15	.20	.16	.20
성취감	.23*	.10	.23*	.10
상수	.28	.60	-.30	.66
LR chi ²	23.22***		27.40***	
Pseudo R ²	.03		.04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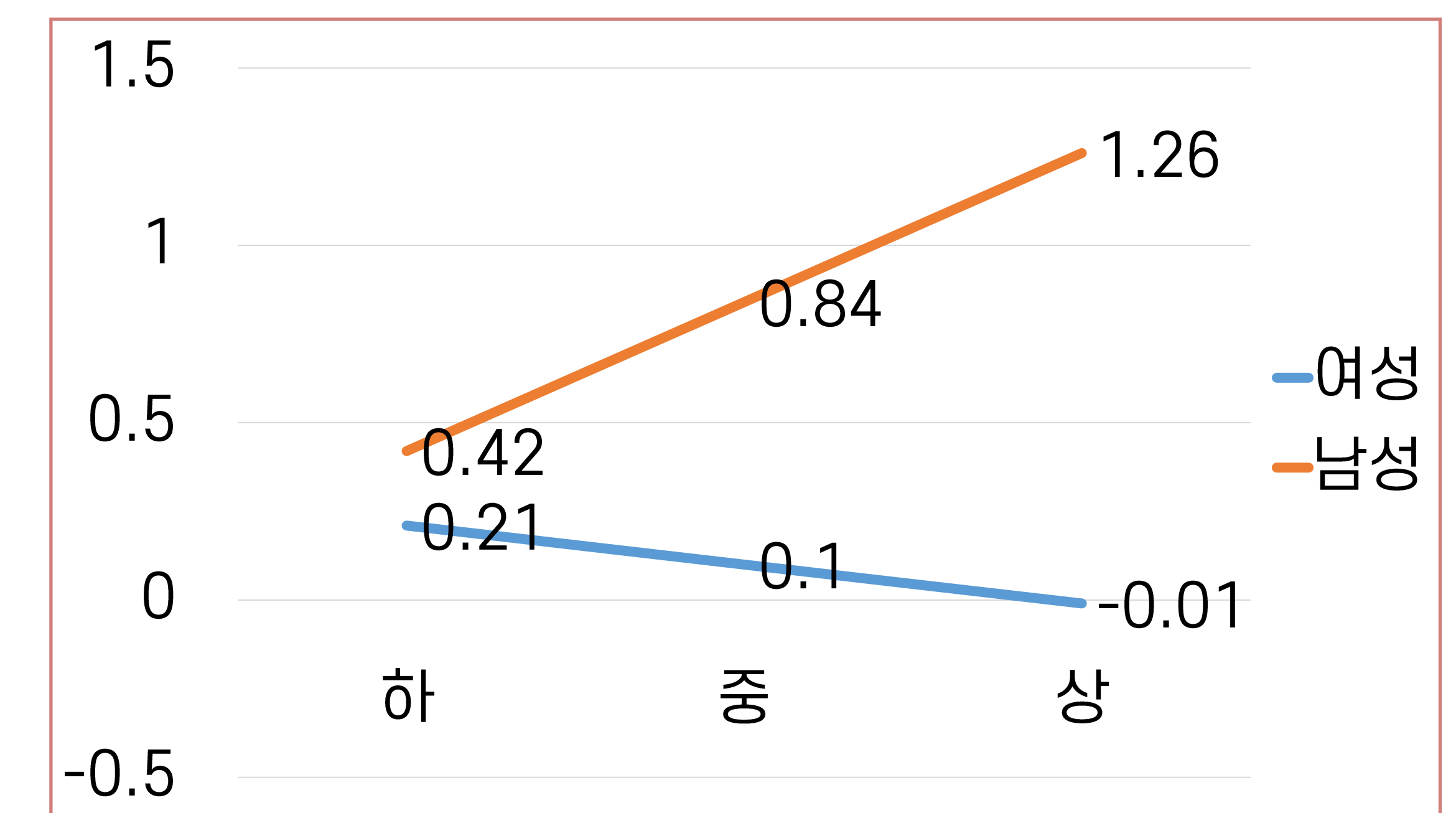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성별과 주관적 계층 상호작용 효과

-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, 연령, 교육수준, 직업지위, 성취감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낮았고($b = -.58, p < .001$), 계층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
- 다만, 젠더와 계층의 상호작용 효과($b = -.56, p < .05$)가 유의하여, 여성은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낮아지고, 남성은 반대로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음

결론 및 논의

- 젠더와 계층을 교차했을 때, 각 집단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동질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, 동질혼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서(신윤정, 박신아, 2018) 남녀 각각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함
-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족정책은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 효과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. 표적 집단에 따라 경제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의 교차 모델이 필요함